

# 인간의 삶과 신의 존재

-신과 인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崔 東 熙 \*

## 目 次

- I. 머리말
- II. 인생의 참된 목적과 신의 존재
- III. 맺음말(신인조화)

## I. 머리말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일종의 동물로서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추우면 옷을 찾고 피곤하면 쉼 곳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음식·옷·집을 중심으로 하는 갖가지 욕구에 있어서도 다른 동물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도 매우 넓다. 그 욕구들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다양해져 왔고,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욕구들만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이성적이고 따라서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이 욕구들은 저마다의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통해 만족되어야 한다. 욕구들이 그 대상을 통해 만족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이성에 의해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이를테면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

\* 고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체계화된다. 인간만이 10년 뒤의 성공(목적)을 앞질러 기뻐하면서(만족을 느끼면서) 지금의 온갖 어려움(수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만이 먼 앞날의 목적들을 위해 쓰디쓴 수단들을 달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간에 있어서는 욕구와 그 대상에 의한 만족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또 예술적인 욕구, 도덕적인 욕구 및 종교적인 욕구까지 합쳐져서 인간의 욕구들의 체계는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하여 영원한 수수께끼일 수 밖에 없다. 인류의 영원한 고전들은 결국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의 자취일 것이다.

우리 인간도 직접적인 욕구 충족의 과정은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모든 욕구의 만족(목적)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눈앞에 있는 사과를 직접 먹고 싶지만, 그 만족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그 만족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선택이다. 우리 욕구의 틀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그 목적과 수단의 틀이 복잡하고 미묘함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그때에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책임으로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참된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운명을 타고 났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을 위해 인간의 욕구와 그 대상 및 그 만족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하고 좀 더 분류·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칠은 뱃길을 반성해 보는 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어떤 종교적인 진지한 삶으로 통하는 길일 수도 있다.

## II. 인생의 참된 목적과 신의 존재

우리의 욕구는 어떤 대상으로 향해 있고 그 대상을 통하여 일단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욕구는 그 만족을 위하여 어떤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 사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사과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정말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현실적으로 있어야만 우리의 욕구를 채워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갖가지 만족은 갖가지 대상들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갖가지 만족들과 그 대상들을 통하여 욕구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지게 된다. 욕구의 충족에 따르는 모든 만족감은 그 대상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보고 알게 된 만족감이 고기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인간의 만족감이 그 대상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 대상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결정하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I. Kant, 1724-1804)는 의·식·주 등에 관계되는 대상(감각적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을 “쾌적함”이라고 한다. “쾌적함(angenehm)이란 감각을 통하여 감각기관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sup>1)</sup> 예컨대 코라는 감각기관이 그 코로 느낀 향기로운 냄새(감각)를 통해 얻은 만족감이 쾌적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적인 만족감이다. 이러한 쾌적함을 주는 모든 대상을 “쾌적한 것”(das Angenehme)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감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모든 물건 곧 우리의 의·식·주·환경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쾌적한 것”에 속한다.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만족감(쾌적함)을 위하여 갖가지 많은 대상(쾌적한 것)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의·식·주·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의 존재에 큰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저 하늘과 땅도 해·달·별들도 우리의 쾌적함을 위해 우리의 크나 큰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祭禮)로서 바람·구름·우뢰·비·산·약·바다·강물의 신들에 지내는 제사가 있고 사람 수명을 다스리는 별(老人星)과 농사를 다스리는 별(靈星)에 지내는 제사도 있다.<sup>2)</sup> 이것은 자연환경에

1) 칸트(이석윤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1974, 60쪽. (번역은 필자가 역자의 번역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禮典(祭禮), 237쪽

관계되는 대상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느냐를 말해 준다. 그리고 감각적인 대상(쾌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큰 관심이 종교적인 대상(신령)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직접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다. 농사를 맡아 다스리는 별의 존재에 대한 관심은 일반 사람에겐 거의 있을 수 없다. 원래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입고 쉬기 위해 직접으로 필요한 물건들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겹겹이 문을 막은 궁궐을 궁성 안에 크고 훌륭하게 지어도 사는 곳은 무릎을 들여놓을 만한 곳일 뿐이다. ... 앞에 여덟 가지 진미를 차려놓아도 먹는 것은 입에 맞는 것 뿐이다.”<sup>3)</sup> 이렇게 그때그때에 우리가 직접 필요한 감각적인 대상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칸트도 우리 인간이 직접 관심을 가지는 ‘쾌적인 것’(감각적인 대상)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간접으로 감각적인 대상들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다양화한다고 말한다.

선함이란 이성이 개입하여 한갓 개념에 의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다만 수단으로서만 만족을 느끼는 것을 ‘무엇을 위하여 선함’(유용한 것)이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로 만족을 느끼는 것을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부른다. 이 양자에는 어느 쪽에나 늘 목적의 개념이, 따라서 (적어도 가능한) 의욕과의 이성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에는 어떤 객관 또는 어떤 행위의 존재에 따르는 만족, 다시말하면 어떤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sup>4)</sup>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만족감에도 이성이 작용(개입)하게 된다. 이리하여 “한갓 개념에 의하여”(durch den blossen Begriff)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만족감을 “선함”<sup>5)</sup>(gut)이라고 한다. 배고플 때 음식을

3) 장은고(張蘊古), 『대보잠(大寶箴)』. (十八史略 卷之五 唐太宗條)

4) 칸트, 앞의 책, 62쪽

5)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좋음”을 함께 품고 있다. 착한 행실도 좋은 물건도 다 같이 선하다고 한다. 그런데 좋다는 것과 쾌적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좋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쾌적하다는 것은 감각적인 효과를 말한다. 지금 먹는 사과가 쾌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일 먹을 사과는 이미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져 좋다고 평가될 수 있다.

먹는 것은 직접 음식을 통한 만족감이다. 지금은 배고프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을 한갓 생각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이라는 개념만’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존재다. 이래서 두고두고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만족을 느끼는 부자를 부러워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원숭이는 아침에 당장 먹을 수 있는 도토리에는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저녁에 줄 도토리 곧 도토리의 개념에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원숭이들 우두머리가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나누어 주려고 하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줄 것이다’라고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럼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마’라고 하니 모두가 기뻐했다.”<sup>6)</sup> 사실은 원숭이들에겐 앞으로 저녁에 나누어 줄 도토리 곧 도토리라는 한갓 개념이 아예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겐 부러워할 부자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만이 이성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한갓 개념에 의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만족감은 직접 물건(도토리)에 의해 느끼는 만족감인 “쾌적함”과 다르기에 “선함”이라고 한다. “선함”이라는 만족을 주는 대상들을 “선한 것”<sup>7)</sup>(das Gute)이라고 하여 “쾌적한 것”과 구별한다. 원숭이들에게는 쾌적한 것은 있지만 “선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감각적인 물건이 아닌 “한갓 개념에 의하여”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의 만족감에도 이성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만족을 느끼는 데 그칠 수 없다. 이성을 통해 그 만족의 결과들을 두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숭이는 아침에 넷(朝四)을 먹는 만족을 느끼는 데 그치고 저녁에 셋(暮三)만 먹게 된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미리 결과들을 생각하여 본다는 것은 곧 “목적의 개념”(der Begriff eines Zwecks)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인간은 어떤 만족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만족감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 보게 된다. 따라서 그 만족감이 어떤 목적의 수단(방법)으로 좋고 나쁨이 문제된다.

6) 『莊子』齊物論 第二, 이 이야기로부터 “朝三暮四”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감쪽한 꾀로 사람들을 이용함을 뜻하는 말이다.

7) “선한 것”에 착한 것 곧 착한 행위·의지·인격 같은 것이 속하여 있는데 이것을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좋은 것” 곧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있는 것이 속해 있는 데 이것을 “수단으로서 선한 것”이라고 한다.

곧 어떤 대상에 의해 만족을 느끼는 단순한 관계에 수단과 목적이라는 복잡한 관계가 얽히게 된다.

향신료와 그 밖의 양념감으로 맛을 낸 요리에 대하여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은 쾌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그것이 직접으로 감각기관에 쾌적감을 주지만, 간접으로는 곧 여러 결과들을 두루 내다보는 이성에 의해 살펴본다면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의 가치를 살펴볼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찾아볼 수 있다. 건강은 건강한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으로 쾌적하다.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곧 모든 신체적인 고통이 멀어졌다는 점에서는) 그러나 건강을 선하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다시 이성에 의해 건강을 그 목적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곧 건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싶도록 하는 상태일 때 이런 우리의 상태가 건강의 목적인데 이 목적과 건강을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sup>8)</sup>

갖가지 조미료를 써서 맛을 낸 요리는 우리에게 직접 감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마련이다. 이렇게 요리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만족을 주는 것도 다시 목적의 개념에 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두루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성은 모든 것을 실천의 측면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통하여 따져보게 된다. 그렇게 맛있는 요리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 생각한다. 예컨대 우리 건강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요리는 맛은 매우 좋지만 따라서 감각적으로 큰 만족을 주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 요리는 건강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선한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요리는 건강의 수단으로서 ‘선한 것’일 수 있지만 건전한 경제생활이라는 목적의 수단으로서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또 건강을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이 건강도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선한 것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을 척척 기꺼이 하고 싶은 신체 상태가 건강의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건강은 비로소 선한 것이다. 이렇게 건강도 선한 것이라고 하려면 “이성에 의해 건강을 그 목적과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바라는 “행복”(die

8) 칸트, 앞의 책, 63쪽. 건강도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목적의 수단으로 평가될 때에 선하다고 할 수 있다.

Glückseligkeit)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해서도 역시 모든 사람이 삶의 쾌적함의 최대 총합(분량으로나 지속에 있어서)인 이 행복을 참으로 선한 것, 아니 최고로 선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이성은 거부한다. 쾌적함이란 바로 향락이다. ... 그러나 한갓 향락하기 위해서만 사는(그리고 향락을 추구하여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이성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삶에 있어서 자기와 마찬가지로 향락만을 추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향락을 취한 수단으로서 최선의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공감에 의하여 모든 즐거움을 함께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향락에 도움을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성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sup>9)</sup>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일 것이다. 칸트는 이것을 “삶의 쾌적함의 최대 총합”(die grossere Summe der Annehmlichkeiten des Lebens)이라고 한다. 곧 일생의 온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쾌적함(감각적인 기쁨·즐거움)을 합친 전체가 행복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쾌적함을 그 분량과 지속에 따라서 계산한 전체적인 합계가 행복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무렵에 영국에서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학설이 큰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최대 분량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하였고 쾌락(pleasure)을 그 분량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이런 점에서는 칸트의 행복에 대한 생각과 서로 통한다. 칸트는 쾌적함의 최대 분량을 행복이라고 보는 데 쾌적함과 쾌락은 대체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도덕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것에서는 칸트의 행각과 아주 다르다. 칸트는 쾌적함의 최대 분량인 행복을 “참으로 선한 것” 혹은 “최고로 선한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본다. “쾌적함이란 바로 향락”인데 향락을 위해서만 사는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최대 행복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 곧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향락만을 위하는 것이

9) 앞의 책, 63-64쪽

10)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1, 94-96쪽

라면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이와 같이 칸트는 개인의 행복(벤담이 말하는 최대행복)도 한 사회의 전체적인 행복(벤담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선한 것” 곧 다른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벤담이 그렇게 강조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향락만을 추구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선의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이성인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칸트가 말하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향락을 고려함이 없이 완전한 자유에 의하여, 그리고 자연이 그에게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공할 지도 모르는 것에 의존함이 없이 오로지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만 그는 하나의 인격의 존재로서의 자기 현실적인 존재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준다. 그리고 행복은 거기에 쾌적함이 완전히 충만되어 있을 지라도 아직 조건 없이 선한 것과는 아득히 거리가 멀다.<sup>12)</sup>

이 향락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치밀하게 생각된(혹은 잘 꾸며진) 것일 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이른바 천상의 향락이라 하더라도 향락을 위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sup>13)</sup>

행복은 한 개인의 최대행복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것이 한 나라 전체의 최대행복 곧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 하더라도 “조건 없이 선한 것”(ein unbedingtes Gut)과는 아직 아득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조건 없이 선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저 동서양 쾌락주의 철학이 치밀하게 따져 교묘하게 주장하여 온 향락(행복)도 더 나아가 “어떤 신비적인 이른바 천상의 향락”(ein mystischer sogenannter himmlischer Genuß)이라

11) 칸트에 따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목적과의 관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12) 칸트, 앞의 책, 64쪽

13) 위와 같은 곳 (칸트 자신의 각주). 의무라는 말 앞의 ‘(도덕적인)’이라는 말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다.



하더라도 역시 향락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어떠한 행복도 그 자체로서는 도덕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오직 가) 향락을 조금도 고려함이 없이, 나) 완전한 자유에 의하여, 다) 자연이 제공할 지도 모르는 행운(어떤 신비적인 행복)에 의존하지 않고, 라) 오로지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은 “인격의 존재로서의 자기 현실적인 존재”(ein Dasein als der Existenz einer Person)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인격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스러운 행위 곧 자기완성을 위한 행위가 혹은 이러한 행위와 직접 관계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오직 행위의 양식, 의지의 원리 그리고 따라서 선한 인간 혹은 악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인격 자체”<sup>14)</sup>에만 관계되는 것이다. 곧 어떤 행위의 양식과 어떤 의지의 원리<sup>15)</sup>(die Maxime des Willens) 및 선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인격 자체만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일 수 있다. 이것 이외의 “어떠한 사물”(eine Sache)도 그 자체로 선한 것일 수 없다. 여기서 이성의 실천법칙인 “도덕법칙”<sup>16)</sup>(das moralische Gesetz)이라는 말을 우선 쓰기로 한다. 도덕법칙에 따르는 행위양식은 그 자체로 선하다. 어떤 약속을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도덕법칙에 따라 지키는 행위양식은 그 자체로 선하다. 도덕법칙에 따르는 의지의 주관적인 원리는 그 자체로 선하다.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이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의지의 원리(주관적인 원리)가 도덕법칙에 따르면 그 의지의 원리는 그 자체로 선하다.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격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하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법칙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는 인격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하다. 결국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격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법칙에 따라 행

14) 칸트(최재희 역) 『실천이성 비판』 1997, 66쪽. (번역은 필자가 역자의 번역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번역하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5) 여기서 말하는 의지의 원리는 우리 인간 저마다의 주관적인 실천의 원리를 말한다.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나의 의지의 원리가 이성의 도덕법칙에 따를 때에만 그 자체로 선하다.

16) 칸트(최재희 역), 앞의 책, 35쪽. “그러므로 도덕법칙은 저 유한한 존재에 있어서는 정언적으로 명령하는 명령이다. 이 법칙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동하는 인격에 있어서는 그 행위양식도 그 의지의 원리도 반드시 도덕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국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격 자체가 바로 “그 자체로 선한 것” 곧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칙”이란 과연 무엇일까? “행동하는 인격 자체”(die handelnde Person selbst)란 과연 무엇이며 그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신성한(범할 수 없는) 것이다.”<sup>17)</sup> 이렇게 도덕법칙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물 또는 건강·명예·행복과는 아주 다른 신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덕법칙은 자연법칙과 같이 자연적인 사물에 관계되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존재의 행위를 규정하는 “자유 의 법칙”(Gesetz der Freiheit)이다. 곧 자연에 관한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에 관한 법칙이다. 그런데 인간은 일반적으로 신성하다고 할 수 없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법칙이 과연 신성할 수 있을까? 칸트에 따르면 그저 인간은 신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인격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간은 그렇게 신성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인격 속에 있는 인간성은 인간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된 온갖 사물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은 역시 한갓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은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만은 목적 자체일 뿐이다. 곧 인간은 그 자유의 자율에 의하여 신성한 도덕법칙의 주체이다. 바로 이 자율 때문에 모든 의지는, 모든 인간의 자기 자신으로 향한 사사로운 의지까지도, 이성적인 존재의 자율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에 순종하기 마련이다. 곧 모든 의지는 유한한 주체(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의 의지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법칙으로 보아 용납될 수 없는 어떠한 의도에도 이성적인 존재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에 순종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의지는 이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다만 수단으로서만 부리지 않고 동시에 그 자신을 목적으로서 부린다는 조건에 순종하기 마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건이야말로 신이 창조한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 관한 신의 의지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 조건은 바로 이성적인 존재의 인격성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 인격성에 의해서만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바로 목적 자체이기 때문이다.<sup>18)</sup>

17) 칸트(최재희 역), 앞의 책, 97쪽

우리 인간은 물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신성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도 “신성한 도덕법칙의 주체”라고 칸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그렇게 신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성한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존재(주체)’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인간에 관한 칸트의 독특한 사상이 숨겨져 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감각기관을 갖춘 감성적인 존재이기에 아름다운 빛깔·향기로운 냄새 따위의 자극을 받아 보고싶은, 먹고싶은 욕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떨어지는 돌처럼 우리 인간도 감성적인 존재로서 자연법칙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시에 이성능력을 갖춘 존재이기에 “도덕법칙의 주체”(das Subjekt des moralischen Gesetzes)일 수밖에 없다. 곧 자연법칙을 거부하고 자기 이성에만 따르는 정말 의전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렇게 도둑질하여도 마음은 조마조마하다는 것이 바로 도덕법칙의 주체임을 잘 말해준다.

너무나 어려워 저도 모르게 도둑질하였다면 어쨌든 그것은 감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래도 “제 발 저린다”면 그 사람에게도 자연적인 경향을 거부하고 ‘자기 이성에만 따르려는 주체’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법칙을 벗어나 자기 이성에만 따르려는 자유스러운 주체가 있다. 이러한 주체가 스스로 따르는 법칙이 도덕법칙이기에 이것은 필연적인 자연법칙과는 아주 다른 “자유의 법칙”이다. 결국 이성적인 존재가 곧 “인격 자체”이고 또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의 인간성”(die Menschheit in deiner Person)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저마다의 “본래적인 자기”다. 우리 인간 안에 본래적인 자기와 감성적인 자기가 있는데 이 본래적인 자기가 바로 인격 자체이며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이 본래적인 자기야말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신성한 본래적인 자기가 스스로 입법한 것이 바로 도덕법칙이므로 “도덕법칙은 신성하다”고 말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같은 인간 안에 있는 감성적인 자기에게는 명령(의무·당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같은 인간 안에 있는 본래적인(도

덕적인) 자기가 스스로 입법한 도덕법칙을 감성적인 자기는 철저한 의무(명령)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감성적인 자기가 도덕법칙을 철저한 의무로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기 인격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결국 감성적인 자기가 본래적인 자기에 따르는 삶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삶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감성적인 자기가 본래적인 자기에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삶의 태도는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순간순간이 엄숙하다는 것이 이른바 칸트의 ‘엄숙주의’다. 이에 따르면 의무에 따르는 삶 자체가 신성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도덕법칙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영원히 의무를 다하려는 삶 자체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칸트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삶이 종교적인 삶과 직접 이어져 있다. 우리 인간은 운명적으로 그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만 신의 의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 인간의 참된 도덕적인 삶 자체가 신의 의지의 실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신의 조화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로 신의 상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행위 자체가 신의 뜻을 이룩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칸트에 있어서의 신과 인간의 참된 조화일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의무)를 다하는 것 자체가 신이 신으로서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곧 신이 신답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과 신은 서로 직분을 달리하면서 서로 멋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칸트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인조화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의 다음과 같은 말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오십이 되어 천명을 알게 되었다. 육십이 되어 사람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게 되었다. 칠십이 되어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르니 법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sup>19)</sup>

여기서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라도 법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공자의 감성적인 자기가

19) 논어(論語), 위정 제2 (爲政 第二)

바라는 것에 따른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적인 자기는 쾌락을 바라기 쉽다. 그러나 본래적인 자기가 입법하는 도덕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철저한 의무(명령)다. 공자도 도덕법칙에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나이 칠십이 되어 감성적인 자기 마음이 바라는 것에 따르니 도덕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나이 칠십이 되어서도 도덕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마음에 따르니 역시 도덕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공자가 칠십이 되어도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좀 무리하지만 칸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석이다. 나이 칠십이 된 공자도 본래적인 자기가 입법한 도덕법칙에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도덕법칙은 본래적인 자기가 스스로 입법한 것이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입법하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곧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존재다.

둘째로 나이 칠십이 된 공자의 인격을 고려하여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라도” 저절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사람과는 다른 성인으로서의 공자를 존경하여 그의 감성적인 자기와 도덕적인 자기(본래적인 자기)가 아주 하나로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자는 이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아예 문제될 수 없다. 그리고 감성적인 자기를 넘어선 경지에는 자유도 자율도 문제될 수 없다. 본래 신적인 존재에는 도덕도 자유도 자율도 아예 문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자가 말하는 법 곧 도덕법칙도 문제될 수 있다. 그것이 하늘(天) 또는 자연에 속하는 법칙이라면 종교적인 계명 또는 자연법칙일 것이다. 그것이 예(禮)에 속한다면 역시 사회규범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밖에 있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밖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이기에 도덕법칙일 수 없다. 도덕법칙은 본래 이성이 스스로 입법하는 “자유와 법칙”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경지는 곧 “온 자연의 기계적인 질서로부터의 자유와 독립”<sup>20)</sup>의 경지다. 이 경지야말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목

20) 칸트(최재희 역), 앞의 책, 96쪽

적 자체”다. 이러한 참된 자유를 통해 모든 인간끼리 참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참된 도덕적인 공동사회를 칸트는 다음과 같이 “목적의 왕국”(ein Reich der Zwecke)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와 같이 이성적인 존재의 세계(이상의 세계)가 목적의 왕국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인격이 스스로 입법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저마다의 이성적인 존재는 마치 자기가 그의 실천원리를 통해 언제나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입법의원인 것처럼 행동하여야 한다.<sup>21)</sup>

이와 같이 목적의 왕국은 인간의 본래적인 자기가 입법의원인이 되어 구성되는 이상의 왕국이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왕국은 아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이 이러한 왕국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의식(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곧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의 입법의원인”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는 의무의식을 저마다의 양심 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무의식을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칸트에 따르면 이 물음은 인간의 인식능력을 벗어나 있다. 다만 실천이성(도덕의식)에 의해 그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칸트는 저도 모르게 종교적인 신념을 고백한다. 인간이 목적의 왕국의 입법의원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의 의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곧 신의 의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신이 가장 신답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믿는 ‘인간과 신의 참된 조화’일 것이다. 이렇게 칸트의 철저한 도덕주의도 신의 의지를 믿는 종교적인 경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토록 인간의 의무(도덕)를 강조하는 엄숙주의도 ‘신인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21) 칸트(최재희 역) 『도덕철학서설』 231쪽. (이 번역책은 최재희 역 『실천이성비판』 안에 있다.)

### Ⅲ. 맺음말(신인조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칸트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래적인 자기를 “인격 자체”라고 한다. 이 인격 자체야말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는 감성적인 자기(감각적인 주체)를 직접 즐겁게 하여 주고 만족시켜 주는 갖가지 많은 대상들이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이러한 감각적인 대상들을 칸트는 “쾌적인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쾌적인 것을 직접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간접으로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정리하고 재정리하여 두루 활용한다. 그 정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곧 수단과 목적의 관계다. 모든 “쾌적인 것” 및 이들과 관련된 재능·지식·기질·건강·행복 같은 것이 이성에 의하여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정연하게 체계화된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목적의 목적과 수단의 수단으로서 복잡하면서도 정연하게 정리된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유형·무형의 상품으로 다루어져 있다. 모든 상품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이용된다. 따라서 저마다 그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마다 그 나름의 ‘수단과 목적의 틀’을 잘 짜야 한다. 흔히 말하는 인생관이란 이 ‘수단과 목적의 틀’이다. 지금 금융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 저마다의 ‘수단과 목적의 틀’을 다시 잘 짜야 한다. 난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서 연탄을 쓸 것인가 가스 또는 기름을 쓸 것인가? 가정생활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난방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 나라살림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서의 집안살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렇게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이성에 의해 정리된 모든 사물을 “수단으로서 선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수단으로서 선한 것”을 저마다의 수단과 목적의 틀에 따라서 이용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최고 목적을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 가운데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인류의 최고 목표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칸트는 “수단으로서 선한 것” 위에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그 밑의 모든 단계와 차원을 달리한다. “수단으로서의 선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자연의 기계적인 질서에 의존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 선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은 모두 자연적인 것의 지배 밑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이성적인 존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그것은 “은 자연의 기계적인 질서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의 경지다. 인간의 참된 자유·자율의 경지다. 좀 더 나아가 참된 자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인간의 참된 조화 곧 “목적의 왕국”의 이상적인 경지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과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왜 이상의 세계를 바라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인간은 마지막으로 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확신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인조화를 확신하여야 한다. 여기는 이미 종교의 경지이므로 어떠한 이론도 넘어서 있다.

끝으로 대단히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반드시 “수단으로서 선한 것”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래적인 자기는 감성적인 자기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수단과 목적의 틀에 따라 움직이는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 꾸준히 단계적으로 목적의 왕국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감성적인 자아를 통해서만 본래적인 자아가 의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